

영암
군장에
인주간보호
센터 이용자들
로 구성된 음악난
타팀 '라파' 단원들.
<영암군장애인주간보
호센터 제공>



‘다름’을 깨매 예술로 하나되다

서로 다른 조
각들이 모여 하
나의 무늬를 이루듯 각자의 조건과 속도로
살아온 예술의 시간이 무대 위에서 만난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술을 향한 마음만
큼은 멈추지 않는다. 삶의 한계를 넘어 예술
을 걸어 올린 이들의 이야기가 국악 무대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진
도 진악당에서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
사랑 초청공연 ‘조각보-그것은 내가 해야제’
를 선보인다.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장애인예술인
이 공연의 기획과 준비 과정 전반에 주체적
으로 참여한 공연이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조화의 가치를 국악과 전통 연희
로 풀어낸다.

공연의 제목인 ‘조각보’는 서로 다른 천 조
각들이 이어져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전
통 공예에서 착안했다. 장애와 비장애, 익숙
함과 낯설, 각자의 삶과 예술이 한 보자기 안
에서 어우러지며 ‘다름 속의 조화’를 이야기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제 ‘그것은 내가
해야제’는 명고 김정만의 말에서 따온 것으
로 예술을 향한 책임과 다짐, 삶을 대하는 태
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무대의 문은 통영고성오광대 중 ‘문동춤’으
로 열린다. 양반의 자손이지만 불
치의 병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인
물을 형상화한 이 춤은 장애를 결
핍이 아닌 예술로 바라보는 시선
을 담아낸다. 손마화가 춤을 맡고,
우도농악보존회가 악사로 함께한
다. 이어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준비한 ‘신명의 북소리’
가 무대를 채운다. 지체·발달·
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를 지닌 10
여 명의 예술인들이 진도북놀이
가락을 바탕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이들은 사람사랑 대표이
자 진도국립국악원 상임단원 한홍
수의 지도로 국악을 익혀왔다.

남도국악원 20일 진도 진악당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초청공연
‘조각보-그것은 내가 해야제’
진도·영암 예술인 협연 무대
소리꾼 최예나 ‘심청가’ 등 풍성

북지관 관계자는 “직접 민요를 지어 부르는
등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북을 배웠다”며 “각자
의 특징은 달라도 진도인 내면에 깃든 흥을 함
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쟁 명인 김영길씨 들려주는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공연의 흐름을 잡고 묵직하게
이어간다. 조선 후기 독주곡으로 발전한 산
조 특유의 즉흥성과 아쟁의 애잔하면서도 힘
있는 음색이 어우러져 마치 먼 바다에서 밀
려오는 파도처럼 잔잔하면서도 웅대한 울림
을 전한다. 장단은 한홍수가 맡는다.

공연 후반부에는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
터 이용자들 가운데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라파’의 음악난타 무대가 펼쳐진다.
‘한잔해’, ‘사랑의 재개발’, ‘뱃놀이’ 등 친숙
한 트로트 선율에 맞춰 타악 리듬과 몸짓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에 밝고 유

쾌한 에너지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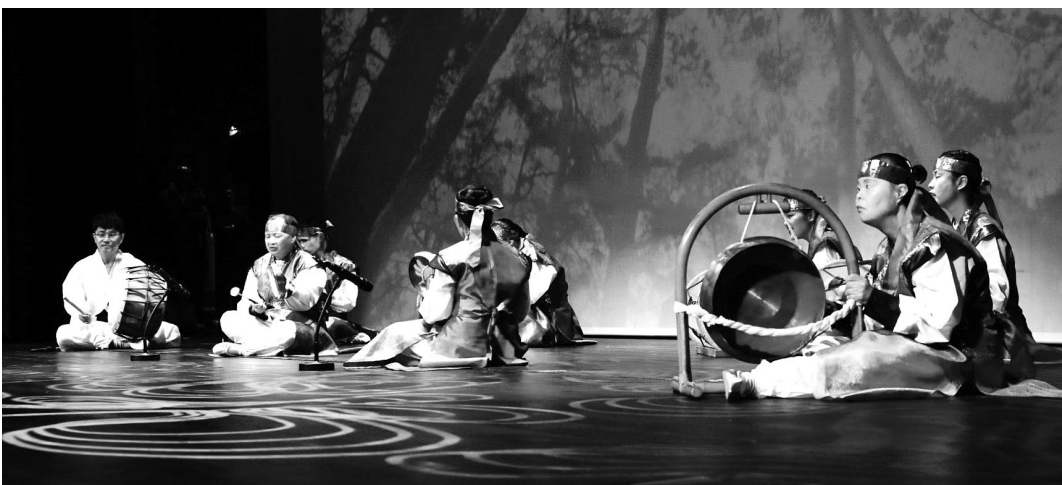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소리꾼 최예나도 무대에 올라
명고 김정만의 북 반주에 맞춰 판소리 심청
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소
리를 향한 소리꾼의 간절함이 판소리의 서사
와 겹치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공연의 마지막은 우도농악보존회를 중심
으로 한 ‘함께 노는 판’이다. 연희자와 관
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흥의 마
당으로 국악이 지닌 공동체적 힘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홍수 대표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예술인들
이 주체가 돼 국악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하
는 무대”라며 “국악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장애인예술인들의 에너지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장애인예술인들에게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은
2011년 지체·시각·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예
술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전문단체
다. ‘장애를 예술로, 예술을 나눔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 공연, 나눔 활동을 꾸
준히 이어오며 장애인예술인에게는 자기계발
의 계기를, 비장애인에게는 장애 인식 개선
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신명의 북소리’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유패 상쾌 ‘프리즌’ 광주 앵콜 공연

극단코스모스 뮤지컬, 19~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뮤지컬 ‘프리즌’의 한 장면.

<극단코스모스 제공>

1980~199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전설적 록밴
드 ‘건즈 앤 로지스’. 뛰어난 가창력과 연주 실력으
로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각
종 기행과 돌출 행동으로 끊임없이 화제를 낳았던
‘문제아’들이기도 했다.

그들의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파란만장한 이미
지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프리즌’이 광주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연말 광주 관객을 웃음으로 사로
잡았던 작품이 이번에는 앵콜 공연으로 다시 관객
을 만나는 것이다.

극단코스모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뮤지컬
‘프리즌’을 오는 19~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
장에서 선보인다. 19·23일 오후 7시 30분, 20·24·
25일 오후 2시·5시, 21일 오후 3시 진행 예정.

프리즌은 2010년 3월 초연 이후 10년 넘게 꾸준
한 사랑을 받아온 흥행작이다. 건즈 앤 로지스의
일화를 모티브로 유패한 코믹 뮤지컬로 컬투의 정
찬우가 제작에 참여했다.

가수를 꿈꾸며 록밴드를 결성한 청년들이 연습
생 시절 사기를 당하고 돈을 마련하려 은행을 털다

체포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품의 핵심은 교
도소 안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수감 생활기다.
살아남기 위해 노래와 춤으로 감옥의 ‘방장’을 즐
겁게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들은 매일 혹독한
(?) 트레이닝을 견디며 탈출을 꿈꾼다.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이들은 숨겨둔 돈
을 찾으러 다시 은행을 찾지만 그 자리는 이미 클
럽으로 바뀌어 있다. 클럽 밴드로 취직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각종 콘셉트로 변신하며 무대
를 이어가고, 마침내 음반 출시 제안까지 받게 된
다. 예상치 못한 성공과 함께 이들의 인생도 새로
운 국면을 맞는다.

공연 중에는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하거
나 박수를 치는 참여형 장면도 마련돼 객석과 무대
의 경계를 허무는 즐거움을 더한다.

박석인 극단 코스모스 대표는 “지난해 광주 관
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앵콜 공연으로 이어졌다”며
“잠시 현실을 잊고 음악과 웃음에 몸을 맡기는 시
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5만원. /장혜원 기자 hey1@

창작의 산실 ‘토문재’ 입주작가 모십니다

해남 인송문학촌 다음달까지 접수

지난 2022년 개관한 해남의 인송문학촌 토문재
(촌장 박병두)는 현재까지 302명 작가들이 거쳐
간 창작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인송실, 하우실,
난초실, 송정실, 국화실, 목련실, 인송정, 토문재
북카페와 다목적 휴게실과 세미나실 등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있
다.

인송문학촌 토문재가 2026년 창작집필공간 입
주작가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시, 소설, 수필, 평론, 번역, 희곡,
동화, 시나리오, 드라마 극본 등 문학 장르 외에도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 창작예술가들에게도 문
호가 개방돼 있다.

입주작가 자격은 신춘문예, 문학전문지(계간
지, 월간지) 등 제도를 통해 등단한 작가여야 하
며 작품집 발간실적이 있는 기성작가와 신진작가

에게 우선적인 가점이 있다. 청소년 작가들에게도
문을 열어 국내외 우수한 작가의 추천 또는, 해당
장르 분야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이 가능하면 누
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인송문학촌에서 발간하는 ‘토문재문
학’ 연간지 창작 성과물 일괄으로 1년 이내 산문
(생활문 또는 기록문), 운문 1원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기관 창작 강의 등 지역문화네트워크
문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내년 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인송문
학촌토문재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
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송
문학촌토문재 홈페이지 참조.

박병두 촌장은 “토문재는 작가들이 쾌적한 환경
에서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갖추
고 있다”며 “작품 창작을 계획하고 있는 작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한계 (km²)	유산지역 (km²)	완충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
(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써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탄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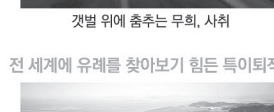
갯벌 위의 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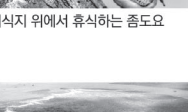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일반서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위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체



갯벌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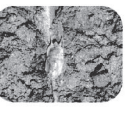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쟁쟁을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쟁쟁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